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머릿글 SH공사 감사 김만기

4월 프로그램

창립 30주년 기념 포럼
한국의 未來와
經濟成長의 正道

커버스토리 美 백악관 국가장애통계위원회 정책차관보 강영우
광화문에서 백악관까지
실명당고 일어난 우리시대의 등대

특별칼럼

이화여대 교수 김수지

세상을 보는 눈

정연아이미지테크연구소 소장 정연아

회원&연구원소식

지자체특강

경제평론가 / 경기대 교수 엄길청

리더십이야기 / 발행인편지 / 조순 칼럼

표지인물 강영우 美 백악관 국가장애통계위원회 정책차관보 /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원장

4

2005 April

등록번호: [매체]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5년 4월 1일 발행인: 정만기 안건개발연구원(KHI) 주소: 136-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idi.or.kr 디자인: 디자인코드 www.cod2.com 인쇄: (주)동명인쇄 T. 462 6323



산자부장관상 / 흥은초교 6학년 최 승 희



금상 / 일반부 최 영 미

고객의 안전이 우리기업의 발전입니다.

내손으로 하는 30초의 가스점검이
나의 가족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켜 줍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www.seoulgas.co.kr



삶의 여유

김만기 SH공사 감사

우리는 격변·격동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 경쟁 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격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사회의 패배자가 된다. 환경에 적응하려면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친다. 과거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 동안이면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부르짖으면서 말도 배우기 전부터 교육을 시키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석사니 박사니 하면서 끝도 없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은 결국 행복이란 단어가 아닐까 싶다. 행복한 삶은 모든 이의 바람이다. 그런데 행복이란 무엇일까? 등 떠승고 배부르면 행복한 것일까?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해야만 한다. 반만년 이래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또 우리보다 GNP가 낮은 인도나 방글라데시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은 훨씬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나라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씩 말하지 않는가. 옛날 농사지을 적에는 비록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지만 그 때가 행복했었다고….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정신적 만족감이다. 행복은 반드시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찾으려 사회적 지위와 물질의 소유와 향락의 추구에 매달릴 때가 많다. 이러한 그릇된 욕구가 사회의 가치관으로 변질되어 정착되어지므로 우리 사회는 불행해져 가는 것이다. 행복은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쯤 작고하셨지만 <사상계> 편집위원을 지냈던 모 작가의 수필집을 보면 행복의 첫째요소는 낙천적 인생관이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보람있는 일이라고 했다. 인생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푸른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푸르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붉게 보이는 것이다. 또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절망에 빠져 살아갈

수가 없다. 가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의 주인공들을 보면 사회의 냉대와 사랑의 교감에 메마른 환경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낙천적 성격과 사랑만 가지고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흔히 돼지를 비교해보면 된다. 그러므로 행복의 핵심적 마지막 요소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뒤돌아보는 심정으로 과연 얼마나 보람있는 일을 해 왔나 반성해 볼 때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람있는 일보다는 후회하는 마음만 머리에 꽉 차 있는 느낌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 남들의 명예나 지위를 부러워하지는 않았는지, 돈 잘 버는 친구를 보면서 공직생활을 후회하지는 않았는지, 유흥문화나 쾌락으로 치닫는 풍조를 한심하게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같이 휩쓸리고 싶은 충동은 없었는지… 다행스럽게도 나이를 먹다보니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았다. 명화를 감상하고 화가의 에피소드나 명화 뒤에 숨겨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지인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또 전시회 등을 둘러보며 그림을 감상하는 일 등이다.

우리는 자칫 현실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이 불행인줄 알면서 세속적인 성취감에 사활을 걸 때가 있다. 인생에는 깊은 맛이 있어야 한다. 맛은 여유요, 풍류요, 아취(雅趣)요, 낭만이요, 세련된 미요, 자유로운 마음이다. 때문에 예술을 모르는 사람은 운치와 풍류가 없고, 미를 모르는 사람은 파분하고 삭막하다. 미는 마음의 여유를 준다. 좋은 글씨나 그림을 감상할 때 정신의 휴식을 느낀다.

그러므로 삶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여! 가끔은 일상을 벗어나 정신적인 안정을 찾아보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유유자적하는 취미삼매경의 생활을 가져보자. **人間**



김만기 SH공사 감사

1948년 생 / 연세대 행정학 석사 / 광운대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행정자치부 기획과장, 감사과장, 국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세연구원 국장 / 충북 경제통상국장 / 청주시 부시장 / 대전시 감사실장, 서구청장 / 서울시 서대문 부구청장 / 현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4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초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북아 허브로서의 인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1396회 4월 7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박 호 군 인천대 총장

최근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특구로 떠오르는 송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리고 인천대는 송도 신캠퍼스 이전계획 추진계획과 함께 박호군 총장의 취임 이후 동북아 '허브'를 꿈꾸며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인천대는 연구·생산기지로써 외국 유명대학들과의 공동연구, 산학협력 등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로 발전할 것이며, 2008년 송도로 이전되었을 때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중국학, 국제물류, IT, BT, 국제통상 분야를 특성화해 나가고 있다. 지리적·문화적·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기반을 굳건히 하고 전문가를 육성하여 인천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천에 국립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인천대의 실질적인 국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송도와 산·학·연 연계를 추진해 특성있는 대학으로의 변모와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중국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여 가장 큰 물류교역 상대인 중국에 대해 이해하며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인천대 박호군 총장을 초빙하여 대학개혁의 새로운 시도로써 지역사회와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진정한 산학협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화학과 졸업
- 美 일리노이대 화학 석사
- 美 오하이오주립대 이학 박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회 이사
- 국회환경포럼 자문위원

-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위원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혁신단 위원
 - 제5대 과학기술부 장관
- (상훈) 20세기 환경 인물50인, 제3회 인천시 과학기술 대상, 국민훈장 목련장

경제선진국의 꿈과 산림정책 그리고 우리 소나무 이야기

1397회 4월 1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조연환 산림청 청장 / 전영우 국민대 교수

우리나라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인정하는 산림녹화 성공 국가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 동안 나무를 심기만 하고 가꾸지 않아 30여년이 지난 지금 국토의 64%가 녹지라고는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이대로 방치한다면 쓸모 없는 숲으로 버려지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숲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에 숲은 숲답게 가꾸어져야 한다. 잘 가꾸어진 숲은 깨끗한 환경과 시각적 효과, 임산물 생산 등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또한 크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숲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마음속으로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고 있는 소나무가 걸렸다 하면 치사율이 100%여서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5년 동안 피해면적이 1800배나 늘어나 백두대간까지 급속도로 번질 태세로 이제는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전멸위기에 처한 소나무를 지켜야 할 상황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조연환 산림청장과 전영우 국민대 교수를 초빙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산림정책의 방향과 함께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우리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조연환 산림청장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업
- 국방대학원 국가안전보장학 석사
- 제16회 기술고시 합격
- 산림청 산림경영국 경영계획과 과장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과장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국장
-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국장

• 산림청 차장
〈상훈〉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2003환경인상 외
〈저서〉 그리고 한그루 나무이고 싶어서, 나무의 마음 숲의 노래 외



전영우 국민대 교수

- 고려대 입학과 졸업
- 고려대 입학 석사
- 美 아이오와주립대 산림생물학 박사
- 육종학회 상임이사, 식물조직배양학회 이사
- 국민대 산림과학연구소 소장, 산림과학대 학장, 도서관 관장,

전산정보원 원장
• 숲과 문화 연구회 운영위원, 동송학술재단 사무국장
• 한국녹색문화재단 이사,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이사
〈저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산림문화론, 숲과 한국문화 외

사랑으로 조국은 하나다

1398회 4월 21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박세록 美 SAM의료복지재단 총재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생산력 저하로 인해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했던 이상적인 의료체제가 붕괴된 실정이다. 특히 모든 북한 주민들의 진료를 국가가 담당하는 의사담당구역제의 경우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주민수가 도시는 1,200여명, 농촌은 1,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의료품 부족 또한 심각한 수준이어서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남북간 구호 회담을 통해서도 지원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극복과 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장기적 플랜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특히 노약자·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과 함께 전문가의 자문·관리감독을 통한 병원현대화, 제약공장 설립 지원, 연구지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과 미국 북미기독교 의료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평양 제3인민병원을 도와 개원하였고 나진, 선봉지역 등에 의료 및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박세록 총재를 초빙하여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집안, 장백에 의료실을 개원하고 조선족, 고려족, 탈북자들의 구호를 통해 '말씀으로 새 고구려를 건설' 한다는 운동과 함께 조국 사랑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의과대 졸업
- 도미 유학, 산부인과 전문의 취득
- 미시간 웨인주립대 의과대 교수
- UC Davis 의과대 임상교수
- 북가주 VA Medical Center 부인과 과장

• 북미기독교의료선교회 창설자, 명예회장
• 우리민족서로돕기 미주본부 준비위원 상임대표
• 한민족복지재단 창설, 국제 총재
〈저서〉 사랑으로 조국은 하나다, 말씀으로 새 고구려를 건설하자, 여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은가, 남자는 왜 아픈 데가 더 많은가

신행정수도와 지역균형발전

1399회 4월 28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최근 국회는 12부 4처 2청을 포함, 중앙행정기관 49개 기관을 공주·연기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옮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비용이나 규모, 일정까지 대체적으로 밝혀진 상태이다.

지난 100년간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사람과 재화가 모이는 근간으로써 발전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수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한 것 또한 사실인 만큼 행정도시 이전이 발표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각 분야의 문제점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행정공간을 이동시키는 것은 정치의 힘이다. 그러나 그곳을 실제로 번창하게 할 요소는 행정건물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 즉 대학, 연구시설, 상업시설, 기업, 국제기능, 관광 등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시장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인데 아직도 시장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자본주의 도시발전사에서 경제활동 없는 도시는 자립할 수 없으므로 행정기능과 경제기능이 융합되어 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신행정수도는 물리적, 문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첨단 자금조달방식(financing)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을 초빙하여 신행정수도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공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美 이스트캐롤라이나대 정치학 석사
- 美 하버드대 정책학 석·박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21세기 위원회 위원, 공기업 평가위원

•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 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장
•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 한국협상학회 회장
• 국방부 자문교수, 내무부 자문교수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저서〉 노사협상전략, 한국의 과제와 전망, 지방정부론,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책(공저) 외

한국의 未來와 經濟成長의 正道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포럼

인간개발연구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 동안 교육을 통한 인간개발을 비롯한 연구원의 비전과 활동에 뜻을 같이해주신 역대 회원사의 경영자, 정부인사, 역대 강사, 언론인 등 각계의 인사들을 모시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는 뜻깊은 포럼을 지난 3월 8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의 未來와 經濟成長의 正道”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정준석 중소기업청 차장, 이연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현정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영기 노동연구원 원장,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중소기업에 관련된 8개의 유관기관에서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여한 기관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한국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正道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400여명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4월 호 화제의 강연에서는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포럼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분야별 발표를 요약 발췌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3월 8일(화) 숙명여대 100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

| 주제발표

한국경제의 성장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활성화의 길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우리 경제는 작년에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우리는 2,540억불 가까운 수출을 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31%가 넘는 수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우리는 수입비용으로 496억불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도 381억불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흑자를 통해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2,000억불을 넘어서면서 세계 4위의 외환 보유국이 됐습니다. 또 작년에는 외국인 투자도 128억불이 유치되었습니다. 주로 미국계 기업들, 유럽계 기업들, 일본계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균형발전의 원년이 되는 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됐고,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혁신 클러스터가 지정되어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10개를 발굴해서 추진단을 구성했고, 대대적인 투자와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래를 사는, 이런 시대적인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고유가 시대에 휘말렸고,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원화가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문제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4.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1만불 이하 시절의 고성장시대만 연상하고 4.7%를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률 3.23%를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70만명이 넘는 실업자, 40만명이 넘는 청년실업자의 문제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대내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기초를 다진 해였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해였고 그 결과는 4.7%의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어느 시점에서는 이러다가 다시 또 위기가 오지 않느냐, 경제위기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 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4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경제위기라고 하면 세계인들이 믿

어주지를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경제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르긴 하지만 설비투자나 백화점의 매출이 올라가고 지난 1월 달에는 5,016개의 중소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부도난 기업이 110개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창업 대 부도 비율은 지금까지 가장 높은, 스물 세배의 창업 대 부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있어 양극화 문제는 소득 계층간의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수도권은 11.7%의 땅 규모에 47%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맑은 한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북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혜의 자원이 우리에게만 규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2,000만명에게 맑은 한강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원도 일대 지역, 충청북도 일대 지역은 공장이 설립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춘천 시장이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면서 공장을 짓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바이오'라는 것입니다. 춘천은 지금 바이오단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산업은 IT산업과 병행해서 앞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원자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면서 작년에 이미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권의 국가를 유지하고, 무역은 12위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조선, 철강에 이어서 IT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이끄는 이면에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수출에 앞장서는 것 같지만 중소기업은 부품을 통해서 수출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중소기업정책은 보호와 지원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 7월 7일 중소기업대책을 발표하고 12월 24일에는 벤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금년 1월 17일에는 12개의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 정책도 보호와 지원위주의 정책에서 경쟁위주의 정책으로 가자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금융지원 정책도 신용평가 위주의 기술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기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소재를 살리자는 노력은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벌이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97년 이후에 부품소재는 적자산업에서 흑자산업으로 돌아서고 있고 작년 한해만 해도 150억불이 넘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흑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품소재에 대한 정책이 집중될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고용의 36%정도 되는데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2만불 소득으로 가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한마디로 올해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 중 경제활성화 정책의 내용과 실행방향
정준석 중소기업청 차장



우리경제는 그 동안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용을 흡수하는 분야는 중소기업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세계화를 추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 방향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3만개 발굴해서 해외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술향상부터 정보화 지원, 수출판로 지원, 인력지원, 창업 벤처지원, 금융지원, 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 지원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융자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청에서는 주로 R&D쪽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1년에 2조 규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3조 규모의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술, 인력개발, 판로개선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문제는 소위 모태펀드라는 것을 통해 정부가 펀딩을 해주면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시장논리에 따라서 벤처업체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펀드를 만들어서 외국자본도 국내 벤처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혁신과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있어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에 충분한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장기근무자의 경우 일반 주택이나, 국민주택, 임대주택, 자녀장학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중소기업의 또 하나의 어려움이 판로난입니다. 그래서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구매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느 정도 경쟁원리를 도입해가면서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능인증을 하거나 성능보험을 들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준다는 조건으로 신제품 기술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책의 가장 큰 근간은 중소기업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확실히 키워야할 분야는 키우면서 국제경쟁력을 키워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구조전환을 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
이연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벤처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KOSDAQ은 KOSPI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년 동월비 생산증가율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 협력은 부진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중소기업의 역량에 따라

서 그 협력의 방식, 정부의 지원정책이 차별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기술 내적 역량이 없으면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으면 선별협력형 혹은 협력유도형으로 갔다가 마지막 이상적인 단계가 관계독립형이나 협력심화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고>

- ▲관계소멸형 : 역량이 미흡하여 협력이 미미한 유형
- ▲선별협력형 : 제한적 의미의 역량을 갖고 있어 선별적 협력은 가능하나 장기적 협력관계 형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유형
- ▲협력유도형 : 기술력은 뛰어나나 기술외적 역량이 미흡하여 경영지도, 인력파견 등에 주력하면서 협력을 유도하는 유형
- ▲관계독립형 : 역량은 충분하나 대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유형
- ▲협력심화형 : 역량이 탁월하여 대기업과 긴밀하게 기술적, 기술외적으로 협력요인이 발생하는 유형

우리나라는 90% 정도가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인데 정책들은 대부분 대기업을 위한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무, 회계 등을 간소화하여 중소기업 수준의 '눈높이'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경제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산·관·학 공동으로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중소기업의 신뢰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인적교류, 기술·정보 등의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규모 이상의 중소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이 유발되고 확산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규모간의 격차도 완화될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 중소기업간의 격차완화, 제조업 활성화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정산업분야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도 소득이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기존 전통산업의 혁신적인 중견 또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혁신을 선도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집적이 되면 지역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지원정책의 과제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은 자생력의 기반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경쟁력의 문제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규모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로 대변되지만 최근에는 거대기업과 영세 소기업의 격차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간규모

의 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허리 부분인데 허리 부분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의 규모로 따지면 100명 이상 되는 기업의 절대적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부분의 대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지만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업보다도 창업된 기업이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양극화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격차가 크다는 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해당되는 중간규모의 기업 즉, 중견기업이 없다는 문제에 더 큰 관심을 쏟아야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중소기업과의 격차완화 등 이런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우리 경제에 미치는

| 금융지원의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정책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금년에 보증 규모를 총 30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를 창업 초기기업, 시설투자, 수출기업, 지역 경영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증의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네트워크롤'이라 하여

대기업의 납품 주문서만 있으면 바로 보증을 해 주고 있고,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없는 기업들은 자생기반 구축을 위해 선별 지원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공공기관의 관료적이고 서비스 부분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선입견을 없애고 조직을 좀 더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하는 동시에 노사화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직원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의 경우는 지역, 혈연, 학연 등을 배제하고 능력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역사사지의 입장에서 모든 부문에서 문턱을 낮추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용보증기금이 최근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IMF 때에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선 중소기업들이 무수히 도산했고, 그래서 최근에 신용보증기금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때 명분은 대기업이 쓰러지면 딸린 중소기업까지 같이 쓰러진다고 해서 대기업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은 건전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이들을 멀리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아직은 신용보증이라는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가는 돈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이 다시 살아나서 고용 창출을 하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를 따진다면 사회적 환수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제도를 줄이더라도 시장원리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우선 사항입니다.

| 벤처기업의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역할과 활성화의 길 그리고 정부의 육성정책

조현정 벤처기업협회 회장



벤처기업협회는 중소기업을 지식집약형 기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1995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벤처기업들이 많은 사회적 무리를 끼친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의 3%, 수출의 4%를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협회가 발족하면서 벤처 1세대들은 후배들에게 성장모델을 제시하고자 열심히 활

동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코스닥을 만들고 스톡 옵션법을 만들었고, 97년에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98년에 IMF가 터지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나친 지원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후 2001~02년까지 사회적으로 벤처기업이 못매를 맞다가 2003~04년에 들어서는 아예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들어 협회의 뜻이 전달되어 '벤처활성화

원년'을 선포하고 지난 1월을 기점으로 통계상 다소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난 속에서도 성장한 벤처기업들 중에는 창업한지 5~6년밖에 안된 회사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무관심과 비난 속에서도 급성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벤처기업을 보면 창업기, 초기성장, 고도성장, 성숙기, 정체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이들 중 초기와 고도성장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수가 8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기술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기술자체가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기업이 43%나 됩니다.

벤처협회는 지금 '벤처 비전 2010'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하기를 대한민국 경제 10%를 적어도 2010년까지 벤처기업들이 이뤄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세계적 메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형 중소기업을 지방으로 많이 밀어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나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나 역량을 통해서 지방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벤처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사회 공헌을 하고 이를 통해서 후배 기업가나 창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사업가 정신을 불려일으키는 기회나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창업 촉진이 이뤄지고 이공계 기류가 살고 청년 실업이 해소되어야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각오와 생각으로 벤처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 사회 및 인간의 차원에서

노사관계 개선과 일자리 창출

최영기 노동연구원 원장

우리나라 노동 문제는 작년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개별사업장에 개입을 한다던가 이것이 사회적 분쟁,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져 정부와 노동계가 싸우는 양상으로 보여지던 관행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단체행동과 파업을 하던 대기업 노조들이 결국은 실패를 경험한 것이 작년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내에서도 투쟁 일변도에서 대화와 협상을 우선하는 지도부가 들어서고 있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반이 약해진다는 생각에 지나친 자기이기주의를 자제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계에서도 여론의 칼이 무섭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질타입니다.

그런데 노동계 내부에서 자성의 노력들이 있고 온건 합리적인 대화파들이 힘을 얻어 가는데, 이것이 완전히 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도 일종의 정치조직인데 우리나라 노동계 지도부의 리더십이

광장히 취약합니다. 자기를 뽑아주는 조합원들 때문에 일단 표가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장기적인 변화를 모색할 지도부가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재계가 노조의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기간을 설정해서 잘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라, 마음을 열게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업종단체나 지역 경제단체, 전국단위의 경제단체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지역이나 업종별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총 연맹이나 단체들이 특정 사업장을 겨냥하면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노사관계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을 보다보면 기업간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장치사업에서 자동차라던가 전자 심지어 IT분야에 까지 기업간 거래관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방지 한 채 노사관계만 개선하거나 노동조합만 크게 변화해서 어느 날 갑자기 혁신의 파트너로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재계가 정부의 동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부당하도록 거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D 지원의 차원에서

선진경제를 위한 기술혁신기업의 역할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기술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이란 기존의 노동집약형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만이 세계시장에서 승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문성, 유연성, 기민성, 창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경제에 접목시킴으로써 기술혁신 선도, 미래산업 개척, 신규고용 창출, 지역발전 주체 등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혁신선도형 기업 육성전략입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평가시스템 확립으로 기술금융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기술력을 지적재산으로 평가하는 기술평가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평가와 연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25%에서 2007년 50%로 미래 기술가치 위주의 평가보증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으로 기술금융기관으로서 특화,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벤처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에서의 진입과 탈출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시장 인프라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모



태펀드는 10조원을 3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벤처 본연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노하우, 기술력이 사장되어 있더라도 다시 사회 재원화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패자부활전 시스템을 도입해 벤처경영 제기를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7,900개였던 벤처기업이 어느덧 8,100개로 늘었고, 200개 가까운 기업이 새롭게 태동되고 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한 업체가 3,800개입니다. 1차적으로 3,800개 기업과 벤처경영에 관한 협약을 맺어서 모든 정보를 수록하고 궁극적으로는 8,000개 벤처기업에 관한 벤처경영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중입니다. 아울러 외부감사를 조건으로 한다면 새로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획기적인 지원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벤처 생태계의 복원이라는 인프라 조성차원에서 벤처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서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형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이 올해 총 보증의 60%인 6조 8,000억원을 혁신형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평가인증제도의 평가등급을 10개로 나누고 평가모형도 기술, 시장, 사업성에 따라 그리고 용도, 평가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해 용자, 보증, 투자, 기술거래, M&A 등의 Hub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人間**



사진 :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광화문에서 백악관까지 실명딛고 일어난 우리시대의 등대

강영우 美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현대사회의 리더는 다스리는 입장보다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지도자의 전제조건은 남의 아픔에 동참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감동과 영감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원들에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실명한 강영우 박사는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온갖 고통과 차별을 극복하고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피츠버그대에서 한국인 장애인 최초로 교육전공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현재 재미동포로서는 연방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강 박사는 미국 정부가 고위직 연방공무원을 임용할 때 ‘역량’, ‘성품’, ‘헌신’의 세 가지 기준을 따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은 늦었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이른바 ‘3C 혁명’과 ‘섬기는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 설파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가정에서부터 성품과 헌신의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과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의 ‘Not for Self’라는 건학이념에 동감하고 자녀교육에 앞장서 두 자녀를 훌륭한 사회적 지도자로 성장시켰다. 여기에는 40년간 강 박사를 자신의 등대로 여기고 그의 지팡이가 되어준 부인 석은옥 여사의 힘이 컸음은 물론이다.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미래가 보인다고 국민들이 의식을 바꿀 것을 제안하는 강영우 박사를 지난 3월 4일 보름간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기 전날 만나 섬기는 지도자의 구체적인 상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강영우 美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1944년 생 / 연세대 교육학 학사 / 美 피츠버그대 교육학·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박사 / 美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 특인 교수 / 대구대 초청교수 겸 국제협력 학장 /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회장 /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루즈벨트재단 고문 / 美 백악관 종교 및 사회봉사부문 자문위원

지난달 중순에 입국하셔서 출판기념회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의 주요 활동은 어떤 것이지요.

2월 18일 한국에 들어와서 22일 숙명여대 리더십개발원 개원 기념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제가 쓴 몇 권의 책에 대한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책을 쓰면서 출판기념회를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쓴 책 중에 외국어로 번역된 책이 세 권 있는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빛은 내 가슴에> <도전과 기회 3C혁명>입니다. 이 세 권은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오디오북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그 동안 국내에서 발간한 책 중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도전과 기회 3C혁명> 등의 책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이 행사는 제가 주최한 것이 아니라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미국에 오셨다가 먼저 제의를 하였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행사를 책임지겠다고 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출판기념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에 ‘굿월스토어’를 오픈하기 위해서입니다. 1902년 미국 보스턴에서 에드거 헬름 목사에 의해 시작된 굿월은 현재 전세계에 퍼져있으며, 굿월 매장은 기부한 물건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장애인을 위한 가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처음 시작했고 이번에 김종수 목사가 있는 세신감리교회가 오랜 준비 끝에 3월 4일 두 번째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미국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 동안 지켜보신 미국의 교육정책과 미국 사회의 인재양성 방식에 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교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미국의 고등교육사(History in Higher Education)’였습니다. 강의 내용 중 필립스 아카데미의 건학이념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Not for Self’ 즉,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주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랑의 저금통장’을 만들어 결국 두 아들을 필립스 아카데미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Education Week’라는 잡지가 2000년에 21세기 교육의 지표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기관을 통째로 산출했는데 필립스 아카데미가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지도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뛰어난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이것은 필립스 아카데미의 건학이념인 ‘Not for Self’가 미국 전 교육의 일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연방정부는 고위공직자를 임용할 때 ‘인재등용의 3

대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상원인준을 준비할 때 책을 한 권 받았어요. 그 책에 인재등용의 3대 기준이 나오는데 첫째가 역량(Competence : Highest Competence), 둘째가 성품(Character : Highest Ethical Standard), 셋째가 헌신(Commitment : Highest Professional Integrity)이었습니다. 그래서 3C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사회에서 실력은 있는데 인종차별 때문에 주류사회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문제를 잘못 진단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차별을 인권법 차원에서 불법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는 오히려 소수민족을 채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력을 갖춰도 성품과 헌신의 기준에 미달하면 주류사회 진출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인종차별 때문이 아니고 3C 중에서도 특히 헌신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과 기회 3C혁명>이란 책을 쓴 것도 저는 늦었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해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또 한국의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의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잘못된 것보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교육에서 제도라는 것은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입시제도도 보완이 되어야겠지만 그에 앞서 가장 큰 문제는 지도층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의식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더 큼니다. 예를 들면 한국사람들은 비교 경쟁하는 상대평가적 사고방식이 강해요. 이런 생각을 절대평가적으로 바뀌어서 남들과 비교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장기적인 목표, 분명한 목표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3C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실력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실력에만 매달리고 성품, 헌신의 교육은 전혀 못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죠.

그 다음 문제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급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넘어왔지만 리더십은 유교전통에 의해 발달한 ‘다스리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나 세계화시대를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는 성서에 기초한 ‘섬기는 리더십’이 독립전쟁을 거쳐 평등한 국가를 만드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길러줘야 합니다. 실력 위주로 간다면 학자는 많이 배출할 지 몰라도 참다운 지도자를 배출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태도가 바뀌면 새로운 미래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사람들은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가치관, 의식, 관점을 바꿔줘야 하는데 이는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분명 제도의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한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책이나 제도로 장애인들이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 안내자 1인은 무료로 탑승하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아내와 KTX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요금을 받더군요. 그래서 제가 미국 장애인 등록증을 보여줬더니 미국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니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교통에 대한 정책으로 그 취지가 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생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박사님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누님도 시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별을 받고 있다는 죄의식, 또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가 통하지 않으니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갈등하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한 것이 교육이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역할모델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신앙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도 바울을 역할모델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도 하나님이 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

각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 또한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의 과실을 제거해주지 않았을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감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동안의 불평과 원망, 탄식을 회개하고 '이제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다' 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장애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에게는 위대한 역할모델이 되어준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신앙의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신앙에 대한 훌륭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작년 7월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제가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는데, 거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준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힘을 준 것이 신앙임을 생각하면 부시 대통령의 정의는 정확한 것이죠.

박사님 곁에는 항상 사모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이번에 <나는 그대의 지팡이 그대는 나의 등대>라는 책도 출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족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아내가 대학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 때 아내가 자원해서 저를 광화문 네거리 버스 타는 곳으로 안내하면서 처음 만났죠. 그렇게 시작해서 40년 후에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평화문에서 백악관까지’ 자기가 지팡이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나는 그대의 지팡이’가 된 것이고, ‘그대는 나의 등대’라는 것은 실명한 저를 만나서 시각장애자의 교육자가 되는 비전을 보여줘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종신교사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었고 헌신적인 아내로 보람을 느끼고 훌륭한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눈 먼 남편이 등대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그대의 지팡이 그대는 나의 등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특히 아내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공부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돕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공부로 1등을 지키지는 못했어도 인격이나 헌신의 자세를 키울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현재 큰아들은 의학박사로서 안과학 교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작은아들은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고문변호사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들이 ‘아버지로부터는 인생의 방향이나 비전을 배웠고, 어머니로부터는 남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배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한 자세가 지금 그들의 위치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지난달 숙명여대 리더십개발원 개원 기념특강을 통해 “3C를 갖춘 섬기는 지도자의 상”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하셨는데요. 다스리는 리더가 아닌 섬기는 리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3C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섬기는 지도자의 요건 4가지가 있는데 그 요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섬기는 리더십은 ‘Compassion(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남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는데 미국의 경우는 각 가정에서부터 Compassion을 가르치고 있어요. 미래 지도자들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원래 예수님의 리더십인데 성경에서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줘 결국 제자들의 마음을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동으로 인해서 충성심이 나오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전과 방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사는데 의미를 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믿음과 확신을 제시하는 것이 섬기는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느끼신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2001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는 자리에 임명된 후 일해오면서 소방학교와 경찰학교에 재난 발생시 장애인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TV, 현금자동인출기 등 여섯 종의 전자제품 디자인 및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있는 일로써 지금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 2월 22일 숙명여대 리더십개발원 개원기념 특강

저희 연구원은 인간개발에 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사님께서도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인간개발에 대한 박사님의 고견과 함께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 특인 교수로 재직하던 2000년 3월 인간개발연구원의 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연주제가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이었는데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선진 교육정책을 이야기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주장들은 연구원의 ‘인간개발’이라는 모티브와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인간개발에 있어 교육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지난 30년간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공헌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세미나라든가 정해진 집단의 교육에 많은 집중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가치교육운동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 외에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해서 각 가정과 개인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는 교육과 운동을 실천하신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앞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비교 경쟁을 하지 말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원리로 상대평가적 사고의 폐단을 지적하고 절대평가 사고의 장점을 지적하고 유도해주면 미래의 지도자들인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박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나눔의 삶 실천한 아름다운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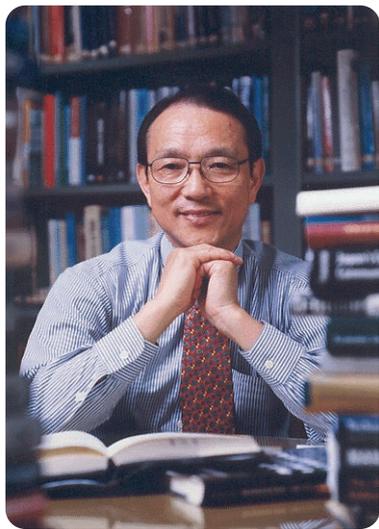
김수지 이화여대 교수

2003년 2월 6일, 한국 경영학계는 뛰어난 학자 한 명을 그리고 우리 사회는 나눔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한 의인(義人)을 말없이 떠나 보냈다.故 김인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더 유명한 학자로 제자들에게는 진정한 학문의 길을 보여준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기억되어진다. 그의 삶이 이렇듯 여러 사람의 가슴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9일 고인의 2주기 추모행사가 있었다.

이에 그 누구보다 40여년간 인생 여정을 함께 했던 부인 김수지 이화여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한사람의 가장, 교수, 공직자, 학자로서 올곧게 살아온 고인의 삶을 회고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편집자 주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아쉬운 사람을 그리워하며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일원동 밀알학교는 휴일답지 않게 매우 분주했다. 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지로부터 온 사람들의 훈훈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로 산돌흠은 후끈거렸다. 모든 참석자들이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저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공간이었다. 바로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3년 1월, 병

판길에 넘어져 두 번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한 채 타계한故 김인수 고려대 교수를 아쉬워하며 추모하는 모임이었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추모행사는 먼저 고인의 40년 지기이자 한국해의 선교회 이사장인 이태웅 목사의 설교와 KAIST 동료교수이며 같은 평신도지도자로서 활동하던 김영길 한동대 총장의 추모사가 있었다. 이어 작곡가 김성기 교수가 현정환 추모음악 감상, 지성찬 시조시인의 헌시낭송을 비롯하여 고려대 동료인 윤영섭 교수와 고인이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던 MK선교회의 백인숙 선교사, 또한 학부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고인으로부터 공부했던 제자 이원규 박사 등의 생생하고 감동 어린 추억과 고백들이 눈물과 웃음 속에서 나뉘었다.

특히 고인이 소천하기 한 달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 영상을 통해 생전의 모습을 대하며 모두 숙연해졌다. 참석자들은 고인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겸손, 사랑, 근검절약, 성실, 나눔과 베풀음으로 일관된 삶을 회고하며 한사람의 가장, 교수, 공직자, 학자, 시민으로서 올곧게 살았던 것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고인과의 추억을 회고하며 홍정길

목사를 비롯한 40인의 글을 모아 출간한 <영원한 우리의 멘토, 김인수>에 대한 출판설명회가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쉬운 마음을 서로 더 나누기 위해 삼삼오오 애찬(愛餐)을 들며 고인에 대한 회고담이 밤늦도록 이어졌다.

한 가난한 청년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까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자신의 삶을 경영한 경영학자 김인수 교수는 1938년 1월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즈음 해방이 되자 부모를 따라 고향인 김천으로 돌아온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상 체신고에 지망하게 되었고 졸업 후 곧 말단공무원으로 취직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도 대학졸업장이 없어 원서조차 낼 기회를 얻지 못하던 중 학력을 묻지 않는 외국대사관에 응시하여 많은 학사 출신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행정책임자로 발탁되어 일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극동방송(FEBC) 부사장까지 승진하게 되었다.

필자가 이화여대 전임강사가 되던 1968년, 그는 야간 국제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가 중단했던 공부를 14년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던 1971년에 미국 정부의 동서문화센터 장학생으로 합격하여 하와이대로 유학을 가게 됨으로써 초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으로 일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된다.

그는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MIT대의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KDI 선임연구원, KAIST 교수를 거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로 봉직한다. 또한 자신의 전공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연구소장, 행정개혁위원장,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의 공직생활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었음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콜롬비아대 초빙교수, 세계은행 및 아시아은행의 컨설턴트, 네덜란드 소재 UN대학교기술연구소 컨설턴트, 초빙연구원 및 이사를 역임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14개 국제학술지 국제편집위원 겸 논문심사위원으로 활약한 그는 6권의 영문 저서와 국제학술지 및 단행본에 실린 논문 60여 편, 그리고 <거시조직이론>을 비롯한 4권의 우리말 저서와 국내학술지 및 단행본에 3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할 만큼 왕성한

학술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물론 이외에도 한국지식경영학회, 기술경영경제학회 및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등으로 국내 경영학계의 발전과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세종문화상(학술부분)과 상남경영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탁월한 학자보다 좋은 기독교인으로 불려지기 원했던 김인수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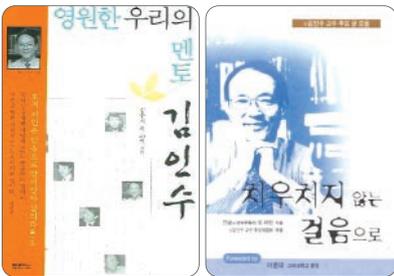


젊은 시절,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외쳤던 그는 친구의 권유로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대학생 모임을 알게 되었다. 비록 성경에는 관심이 없었고 또 대학생도 아니었지만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빠짐없이 참석하다가 신앙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그는 의문을 풀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후, 김인수 교수는 평신도 설교자와 성경강해자로서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말씀을 전하며 실천적인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였다. 또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를 '우리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확신으로 부부가 전공했던 경영학의 조직행동론과 정신간호학의 공통분야인 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와 현실에 맞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를 만들고 대표 및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선교에 남달리 애정이 많았던 그는 한국 OMF 이사장과 한국GMF 이사로서 기독교 해외선교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태평로모임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주기와 2주기에 출판된 추모의 글들



▶ 영원한멘토김인수책표지

▶ 치우치지않는걸음으로책표지

2004년 1주기 때, 가르침을 통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김 교수의 모범적 생활과 정열적 학문 활동을 영원히 기리고 여러 사람들의 가슴속에 스승으로써 교수님의 모습과 자취를 남기게

되기를 바란다."며 50명의 인사들이 그에 대한 추어를 담아 <치우치지 않는 걸음으로>를 발간하였다. 이학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글을 통해 "김인수 교수는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에 참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기술혁신, 학습, 지식경영, 조직론 분야에서 국내 경영학뿐만 아니라 전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논문을 해외 최우수 학술지에 발표하였고,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Industry and Innovation>은 '기술혁신의 창시자'라고까지 평하고 있다."며 그의 학문적 성취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또한 그가 말년에 가졌던 크리스천 리더십 과정에서 훈련을 받은 몇 분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한 크리스천 평신도 지도자로서 삶을 살았던 고인의 발자취를 모아보자는 생각에서 이번 2주기에 맞춰 <영원한 우리의 멘토, 김인수>를 발간하였다.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은 추천사에서 "그의 철저하고 순수한 신앙, 깨끗하고 신사적인 행동,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가 계셨더라면 적어도 나의 중요한 판단과 결정은 훨씬 더 확실하고 성경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술회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고인을 가리켜 '성경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 (홍정길), '신앙과 학문의 북극성' (김홍섭), '축복의 모델 3M' (양승현), '지혜로운 조연자 인생의 길잡이' (유혜신), '꿈꾸는 영원한 소년' (하용조) 등으로 묘사하며 짧지만 굵게, 그리고 겸소하면서도 넉넉하게 삶을 나누다간 고인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도전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하며 그분의 일찍 떠남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두 권의 추모집에 비취진 김인수 교수의 모습을 통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시민으로, 공직자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들으면서 나는 43년간이나 인생 여정을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동행하도록 짝 지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중 하나인 호스피스 사업

2002년 11월 말, 이화여대 가정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호스피스 시설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하게 된 무렵 "유산 1억원을 미리 주면 좋겠다."는 아내의 요청에 남편은 흔쾌히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후에 남편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황망한 중에 정신없이 문상을 받던 차에 조의금을 받게 되었고, 이는 남편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논의 끝에 가족은 부의금 전액을 호스피스 건립기금으로 회사하게 되었다. 뒤이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후원금으로 동참하고 있어 감사하다.

비록 작은 액수이지만 고인을 기리는 추모집 <치우치지 않는 걸음으로>와 <영원한 우리의 멘토, 김인수>를 비롯하여 그가 생전에 했던 강의와 설교 테이프 등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호스피스센터 건립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퇴직 후에 자신들의 전문직을 살려 사회에 필요한 봉사를 하자'며 이화여대 교수 몇 명이 함께 사 두었던 땅에 호스피스센터를 건립하는 우리의 원래 꿈이 현실화되는 것이라 더더욱 감사하다. 이제 한 자원봉사자에 의해 건물 설계도가 완성되어 땅에 삽질을 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와 할아버지로 떠난 자리가 너무나 크게 비어있고, 또 그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김인수 교수는 죽음을 통해서 남아있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남기고 떠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스피스 사업이다. 모금이 순조롭게 되어 호스피스센터가 건립되고 사랑으로 돌보는 섬김의 장(場)으로 운영된다면 이 선한 사업을 통해 그가 생전에 추구하던 정신과 삶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人間**



이제는 이미지 리더십이다

정연아 정연아이미지테크연구소 소장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에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지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11단계나 떨어진 29위로 나타났다. 경쟁력지수의 산출은 실물을 바탕으로 한 경제지표 및 경제통계 데이터와 전세계 8,700명의 기업경영자로부터 얻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 전문가들은 국제경쟁력의 기본 체력부터 키워나가지 않을 경우 경쟁력 순위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이 발표를 접했을 때 국가경쟁력 산출 과정에서 한국인(기업인)의 이미지가 경쟁력 하락을 더 부채질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실물적인 경제와 기업인의 이미지가 무관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경제에서 가장 중시되는 신뢰나 문화,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에 불과한 것들이다. 한 직장에서 직원 개개인의 이미지가 기업의 이미지가 되고, 기업들의 이미지가 곧 국가의 이미지가 되어 총체적인 국가(이미지)경쟁력을 결정짓게 되지 않을까. 기업의 최소단위 구성 요소인 직원 개개인의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PI, Personal Identity)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진정한 초석이다.

외모지상주의 흐름 거부하기 힘들다

흔히 21세기를 3D(Digital, Design, DNA)시대라 부른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능을 강화시킨 디지털 제품,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제품의 디자인을 우선 순위로 하여 기능을 고려하는 제품 디자인, 인간의 수명을 150세까지도 연장시킬 수 있는 생명공학이 그것이다. 이 중 Design은 시각적 이미지로 사람의 외모에 속한다. 디자인 시대니까 사람에게도 외모지상주의(Lookism)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외모지상주의는 부정적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다.

나는 이미지컨설팅을 주제로 한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외모지상주의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상품의 디자인과 빗댄 사례를 든다. 비슷한 기능의 상품을 살 때 기왕이면 디자인이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느냐고, 디자인 좋은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나쁘냐고 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첫인상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깔끔하고 세련된 외양(Appearance)을 가졌다고 속 빈 강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비시대적인 발상이다.

〈평범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라는 책에서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100명의 성공비결이 공개되었다. 이 책은 성공의 필수 요소로 알려졌던 '인생목표'나 '인맥', '카리스마' 등이 오히려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공 인물 중 95%가 성공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인맥'과 '학연'을 성공의 필수 요소로 꼽은 사람은 불과 25% 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에 '융통성'은 96%, '외모'는

100%가 성공의 필수요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이 책은 학창 시절 평범했거나 우둔하게 보였던 친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공한 기업인이나 학자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들을 소개했다.

이미지 경쟁력을 높여라

요즘 TV 광고만큼이나 이 시대의 감각 문화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날이 갈수록 더욱 시각적이고 찢릿찌릿한 장면들을 담아낸다. 이처럼 감각적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도 참 더디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다. 주위에서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타성에 젖어 뚜렷한 자기 이미지 하나 구축하지 못한 이미지 부재자들을 수 두룩하게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무표정한 얼굴과 우중충한 옷차림새, 경직된 제스처로 조직을 이끈다면 비시대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사람이 어떻게 비전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리더의 설득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성공하는 리더는 굳이 입으로 비전을 말하지 않아도 몸에서 비전이 뿜어져 나와야 한다.

21세기에는 이미지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이다. 이제 이미지 경쟁력은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메커니즘으로 이 시대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리더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에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미지 경쟁력으로 개인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21세기의 바람직한 리더의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아직도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가진 대부분의 한국 리더들을 접할 때마다 이미지 리더십이 아쉽다.



이제는 이미지 리더십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흔하게 따라붙는다. 최근에는 손자병법 리더십이니 이순신 리더십이니 해서 그 종류도 참 다양해졌다. 당 시대에 성공한 인물들의 처세술이나 전략을 분석하여 성공 모델로 삼아 그 가치를 습득하는 것들이다.

10여 년 전에는 스티븐 코비 박사가 펴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후 그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널리 소개되었다. 성품 중심의 내면을 강화하는 훌륭한 리더십 프로그램이었지만 한국인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웠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에 너무나 미숙하다. 이런 한국인에게 세련된 처세술이나 대인관계 기법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올바른 성품은 기본이다. 나는 정치인 및 CEO의 이미지 컨설팅 현장에서 알고 보면 내적 성품을 갖춘 사람인데 단순한 '표현 미숙'으로 마이너스 이미지를 얻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상에서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무척 많이 보아왔다. 한국인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매우 미숙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이나 옷차림새, 제스처 등의 외적이미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가볍게 치부한 점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비즈니스 문화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인들의 습관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미지 리더십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케네디 대통령이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 딕 모리스는 그의 책 <과외 게임의 법칙>에서 “닉슨은 정말 얼굴이 못생겨서 케네디에게 졌을까.”라며 정치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닉슨과 케네디의 TV토론회에 얽힌 일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케네디는 마치 미인선발대회 참가자인 양, 매력적으로 비치도록 꾸미고 또 연기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다른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기꺼이 미디어 상품이 되고자 했던’ 최초의 정치

인이었다. 그러나 케네디의 매력적인 이미지는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평생에 걸친 오랜 연구와 노력, 근면의 산물이었다.”

반면에 닉슨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비쳐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훗날 TV토론의 패배를 오히려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글을 저서와 회고록에서 밝혔다고 한다.

“나는 그 때 외양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실질적 내용에만 지나칠 정도로 많은 관심을 쏟았다. 첫 번째 토론에서 나를 가장 언짢게 만든 점은, 케네디와 내가 벌인 대결의 실질적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외양상의 유·불리를 비교한 것이었다.” 이처럼 닉슨은 유권자들이 정치 후보의 외양으로 표를 던진 사실을 두고두고 억울해했다. 외양을 갖추면 실제적인 내면이 떨어져 보인다는 비시대적인 발상이 그를 실패로 이끌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가는 알지만 실제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이미지 리더십 >

1. Face Image - 미소 지어라
2. Fashion Image - 세련된 패션 연출을 하라
3. Manner Image - 매너 좋은 사람이 되라
4. Voice Image - 목소리를 단련시켜라
5. Body Language Image - 몸으로 말하라
6. Communication Image -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라
7. Star Ship Image - 카메라를 즐겨라 人間



정연아 정연아이미지테크연구소 소장

세종대 응용미술학 학사 /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수료 / 조선일보 주최 청년창업 자문위원 / 국내 최초의 표정연구가, 스마일 아티스트, 칼럼니스트 / 대선후보 및 정치인, CEO 이미지컨설팅 / 대기업, 공공기관, 병원, 백화점, 대학교 특강 및 세미나 / 현 한양대 출강, 한국능률협회 파트너 컨설턴트



길들여진 습관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하자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인 간의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능력과 자발적 동기부여 능력이 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할까. 또 잠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면 내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는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개인주의 욕구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으려는 집단주의 욕구가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도록 격려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도록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 결과 우리의 잠재력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우리를 정신적인 난쟁이로 만드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첫째로 가족의 영향이다. 부모들은 하지 말라는 주문을 많이 하게 되어 자녀들은 길들여지게 된다. 안전한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조금만 위험해도 검증된 길을 가기를 원한다. 자녀들이 모범생이기를 바란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기를 귀가 따갑도록 요구한다. 부모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자녀들이 달릴 때 부모는 행복하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이미 많은 습관들이 형성되어 있다. 말하는 모양, 말하는 투, 가치관 등이 알게 모르게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는 유전이 아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 어느덧 부모를 닮아 붕어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보자. 그 육중한 코끼리가 순순히 말을 듣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아기 코끼리 때부터 길들여진 까닭이다. 어렸을 적에 코끼리에 줄을 매어 놓으면 처음에는 달아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시도자체를 미리 포기하고 만다. 나중에는 밧줄을 풀어놓아도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란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말을 잘 듣는 코끼리가 되어 서커스단에 봉사를 하게 된다.

둘째로 사회적 영향이다.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어른도 외부의 영향에 길들여진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향을 받고, 학교선생님도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지옥에서 신음하다가 대학에 오기 때문에 그 자유는 꿀맛이 아닐 수 없다. 낭만이 있는 곳,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물론 요즘은 취업이 힘들어 ‘대4병’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대학생들이 현실적인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대학시절은 자유와 낭만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들이 대학문을 나서서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회사의 요구에 응하게 된다. 회사는 직장인에게 많은 부분에서 길들여지기를 바란다. 수직적인 조직 구조에서는 획일적인 사고가 강요되었다. 모난 돌은 정에 맞아 자신의 개성을 희생하던가 직장을 떠나던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래도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직장의 분위기는 창의성과 도전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단히 좋아지고 있으나 길들여지기를 강요당하는 문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로 실수와 실패의 경험이 길들여지는 데 영향을 준다. 사람은 실수를 거듭하게 되면 의기소침해져서 모험을 기피하게 된다. 또 실수가 쌓이면 실패하게 되고 패배의식이 생겨 무엇을 시도할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만다. 시험에 자주 떨어지면 시험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난다. 그래서 “나는 안돼.” 하는 패배주의가 자리 잡아 콤플렉스가 생긴다.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고시제도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은 젊은이들은 고시공부하느라 대학시절을 편협하게 보낸다. 고시공부야말로 암기식 교육의 전형이 아닌가. 다행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비교적 안정된 길을 걷는다. 반면에 대부분의 고시생들은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앓고 사회에 나와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도전정신을 쇠퇴시키고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들게 만

드는 경우도 생겨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족과 사회와 실패경험으로 인해 길들여진 습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길들여진 것은 나쁜 것인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길들여졌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국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일으킨 치맛바람에 대하여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열정이 있었기에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랬기에 직장에서 인정받아 나름대로 좋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습관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세상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창의성과 도전성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꾸로 보는 파격적인 자세가 있어야 아이디어가 생긴다. 최근 ‘비타 500’이라는 음료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비타민을 왜 약국에서만 사야 하나?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비타민이 몸에 좋다는 것은 세상이 알고 있었지만 정제 형태의 의약품 외에 상품화한 건 없었다. 사람들이 정제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광동제약의 비타500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는 최수부 회장이 길들여진 습관에서 탈피함으로써 가능했다. 마시는 비타민 음료인 비타500의 약진은 피로회복제의 대명사인 박카스의 아성에 위협을 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최 회장은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런 줄 알았으면 연합상표등록을 해서 유사제품의 출현을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비타민 음료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어 기쁘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길들여진 자신의 습관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우물 안 개구리에서 뛰쳐나와 우물 밖의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보자.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변한다. 나의 길들여진 습관들은 무엇일까.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리스트를 만들어보자. 그 중에서 나쁜 습관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고쳐보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자.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변할 때 자신의 무한한 잠재능력이 영향을 받아 운명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변화의 기쁨을 맛보고 고백하는 새 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人間**



회원&연구원 소식

회원소식

• **김용복 (서울)영동농장 회장**은 'CTS TV 기독교방송 - 고무송 목사의 특별한 만남' 대담 프로에 2회에 걸쳐 출연 예정이다. 방영 일시는 다음과 같다.

◎ 방송일정

- 1부 : 3월 27일 (일) 오전 8시, 오후 6시 각 30분
- 2부 : 4월 3일 (일) 오전 8시, 오후 6시 각 30분

• **김태인 삼부해운 회장**은 로터리재단을 통해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해운산업의 선구자로서 <나의 삶 나의 길>이란 제목으로 영상 자서전(성락프로덕션 제작)을 출간하였다.

• **신숙희 우먼타임스 사장**은 창간 4주년을 맞이하여 걷기대회 "함께 키우는 기쁨! 함께 나누는 미래!"를 4월 5일 개최한다. 20인 이상 단체 참가 시 단체 깃발 및 20% 할인이 제공된다.

◎ 아 래

- 일 시 : 4월 5일(화) 오전 9시 ~ 오후 1시
- 장 소 : 남산 백범광장 출발 남산순환산책로 7Km
- 참가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행사당일 신청가능)
- 문의 및 신청 : 02) 730-8500 우먼타임스 사업국
- 참가비 : 성인 10,000원, 중고생 5,000원, 초등학생 이하 무료

• **김은영 비틀맵 사장**은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한국지도가 유통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제라도 비틀맵이 많은 나라에 한국 지도를 유통하여 세계인이 제대로 된 한국지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IMTA(International Map Trade Association)라는 국제지도협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그 첫 해외유통의 시장을 영국으로 선정하였다.

• **김명신 라 꼬리닉 드 파리 원장**은 지난 3월 21일 호텔 신라 3층에서 라 꼬리닉 드 파리 호텔 신라센터의 오픈을 기념하는 Opening 행사를 가졌다.

사무실이전 및 주소변경

• **홍승기 유리스투자자문(주) 회장**은 지난 3월 6일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3-2 굿모닝신한타워19층 (150-712)
- 전 화 : 02-761-4383 · 팩 스 : 02-782-9681

• **황세영 한국씨티은행 프라이빗뱅크 지배인**의 연락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소 : 서울 중구 다동 39번지 한국씨티은행 12층 (100-180)
- 전화 : 02-2124-3549 · 팩스 : 02-2124-3598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4월 1일)
(주)태우금속	이창원 부회장	(4월 1일)
엔사통상(주)	장광준 대표이사	(4월 1일)
다니스코 코리아	조원장 회장	(4월 1일)
삼양전기개발(주)	최기갑 사장	(4월 1일)
부동산 타임즈	이태교 회장	(4월 3일)
제천정신병원	오만식 이사장	(4월 6일)
(주)한국크리버	남재현 회장	(4월 8일)
관동실업(주)	김석기 회장	(4월 10일)
(주)듀오	이충희 사장	(4월 10일)
(주)도드람B&F	김대성 회장	(4월 17일)
덕지산업개발(주)	배승호 회장	(4월 17일)
에넥스(주)	박유재 회장	(4월 18일)
전능IT(주)	박용팔 대표이사	(4월 19일)
영동농장	김용복 회장	(4월 20일)
삼성석유화학	허태학 사장	(4월 29일)

신규회원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법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9층
- 전 화 : 02-3016-8301
- 팩 스 : 02-564-1298
- 업 종 : 금융
- 주생산품 : 신용보증
- 추천인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어성준 前 현대중공업 부사장(개인회원)

- 주 소 :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 삼성쉐르빌 802호
- 전 화 : 02-848-8507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KBS 시사전문앵커(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명지대학교 본관 1414호
- 전 화 : 02-300-1919
- 팩 스 : 02-597-6800
- 추천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제1그룹(회장 유상옥 /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지난 3월 28일 남포면옥에서 제212차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 **차이나클럽(사무총장 이두호)**은 3월 15일 인사동 이조에서 3월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남기열 우리증권 부장께서 등소평의 일대기에 대한 독후감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 **YCF(회장 김상래 / 총무 김창호)**는 3월 21일 광화문 와인바 Baro에서 3월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유럽, 이태리, 스페인 건축양식에 대한 슬라이드 감상과 고품격 와인과 위스키에 대한 감상으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 **인경희(회장 이심 / 총무 윤건우)**는 3월 25일 한양CC에서 오픈경기를 가졌습니다.

연구원소식

• **장만기 회장, EBS 라디오 방송 안내**

장만기 본원 회장은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아 연구원을 대표하여 EBS 라디오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출연합니다.

◎ 방송일시

- 3월 28일(월) ~ 30일(수)
- 오후 1:40 ~ 2:00 EBS FM 104.5 MHz

• **양병무 본원 원장**은 연구원의 법인회원인 (주)성도GL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과정을 3월 3일부터 총 16주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2월 4일부터 다산 임원들을 대상으로 EPL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면적 자질 개발로 개인은 물론 조직의 성과 향상을 돕고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줄 이번 과정을 통하여, 일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원&연구원 소식

• 창립 30주년 기념포럼 '한국의 미래와 경제성장의 정도' 개최



▶ 1부 기념포럼 개회사



▶ 2부 30주년 기념의 밤 케익 커팅



▶ 2부 30주년 기념의 밤 축하 제의



▶ 2부 30주년 기념의 밤 해오른누리의 문화공연

1부 기념포럼을 마친 후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이병혜 KBS 시

본원은 지난 3월 8일 숙명여대 100주년기념관 삼성 컨벤션센터에서 400여명의 회원과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기념포럼 및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포럼은 한국경제 성장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미래와 경제성장의 정도"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정준석 중소기업청 차장,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현정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영기 노동연구원 원장,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분야별 발표자로 참가하여 충실한 발표 자료로 각 기관의 입장을 표명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포럼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전문 앵커의 사회로 감사패 수여와 함께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비롯한 귀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날 감사패 수여는 최장기간 연구원 회원으로 활동하신 원로회원, 30주년 기념포럼을 위하여 지원해주신 조력자, 연구원 홍보를 위해 평소 협력해주신 언론사, 연구원 발행 간행물 제작을 위해 협력해주신 광고협찬사,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주시는 회원 및 조력자, 소그룹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회장단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감사패 수여 등의 공식적인 일정을 마친 후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 한상은 라운지에서 문화공연 '해오른누리' 팀의 공연과 만찬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30주년 연감 발행과 기념포럼을 위해 후원과 협찬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숙명여대 관계자분들과 회원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회원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인간개발연구원 30년 연감 제작 광고협찬사

- 김상래 사장 (주)성도GL
- 김인호 사장 쉐리 코리아(주)
- 김정배 사장 (주)수성
- 김한겸 사장 거제시청
- 마상근 회장 협운해운(주)
- 서정권 회장 일우선박(주)
- 신숙희 사장 우먼타임스
- 우덕성 사장 썬테일러
- 유상욱 회장 코리아나화장품
- 윤건우 사장 삼보주단
- 윤영삼 회장 (주)다산
- 이 심 회장 (주)주택문화사
- 이재용 사장 (주)세람상호저축은행
- 정진호 원장 경쟁력평가원
- 최민형 상무 한국경영자총협회
- 홍승국 사장 에버그린MST(주)
- 홍태선 대표이사 (주)중외메디칼

• 창립 30주년 기념포럼 후원사

- 공한수 사장 Big Dream&Success
- 권오범 사장 (주)신성월드
- 김동철 고문 유신산업(주)
- 김병수 사장 고려도서무역(주)
- 김석기 사장 관동실업(주)
- 김용정 회장 와이제이교역(주)
- 김용희 회장 (주)광인기업
- 김은숙 회장 (주)마이세셋자산운용
- 김창승 회장 성원교역(주)
- 김흥식 군수 전남 장성군
- 남기현 총재 한국NGO지도자총연합
- 박용팔 회장 전능IT(주)
- 박의협 소장 박의협법무사사무소
- 박춘봉 사장 부원광학(주)
- 송언기 회장 (주)태창플랜트
- 신태복 회장 KCTC
- 윤석규 회장 웅진그룹
- 윤희진 사장 (주)다비육중
- 이두호 사장 한국자금증개(주)
- 이시원 사장 (주)부천
- 인간개발연구원 이종기업동우회 2그룹
- 전선희 평화대사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
- 전창윤 회장 우드뱅크
- 정창현 사장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 조병철 사장 (주)한철상사



▶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패 수여 장면

지자체 소식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하동군 직원역시 개혁교육 개설



경상남도 하동군(군수 조유행) 주최, 본원 주관으로 공무원 의식변화와 발상전환을 통한 행정의 능률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하동군 직원역시 개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월 2일 오전 10시,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영식 세계기업문제연구소 소장의 “기본에 충실하고 변화에 도전하자”라는 주제로 개강식을 가졌으며, 향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옥당골 군민강좌 개설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김봉열)과 본원이 함께 21세기 새천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옥당골 군민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3월 22일 오후 2시 영광군 실내체육관에서 구성애 (사) 푸른아우성 대표의 “올바른 자녀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개강식이 개최되었으며, 군민과 공직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폭넓은 지식, 교양 함양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1세기 인재아카데미 개설



강원도 인재문화원(원장 방효정) 주최, 본원 주관으로 공직자와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으로 인재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1세기 인재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3월 22일 오전 9시 30분 인재문화관에서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의 “인재군 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강식을 가졌으며, 향후 첨단 지식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나 대학교수를 초청하여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BIG DREAM & SUCCESS 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과정 개강

LMI 라이선시 파트너인 BIG DREAM & SUCCESS에서 주관하는 동보중공업(주) “성공하는 리더들의 퍼스널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임원급 교육이 총 16주 과정으로 3월 22일(화)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EPM 과정이 3월부터 5월까지 월별로 한 팀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이나 업무면에서 가치 있는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LMI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BIG DREAM & SUCCESS EPL 수료자 정기 모임 안내

1. 제18차 정기 강연회 – “무형재산이 우리 경쟁력”

- 연사 : 이종훈 총장 / 전 중앙대
- 일시 : 4월 11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명동지사 교육장

2. 제10차 정기 등산회 안내

- 가는곳 : 청계산(버스 4312번 옛골 종점)
- 일 시 : 4월 5일(화) 오후 2시 30분

☞ LMI 교육프로그램 소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 리더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 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
- 16주간, 주1회 일정요일, 2시간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 조직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
- 9주간, 주1회 일정요일, 3시간 ※ 석세스플래너 포함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따르면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개포동 본사)
 (T) 2202-8700 (F) 445-2086 (H) www.lmikorea.com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co.kr

회원가입안내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 5,000 (6인이상)

연회비 납입방법

· 하나은행 102-910003-99904
 · 우리은행 132-055539-41-502
 ·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원가입 문의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2203-3500
 · 팩 스 : 2203-1974

부자의 자기경영학

엄길청 경제평론가 / 경기대 교수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2004년 7월 개강한 '노원교양대학'은 노원구청이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 참다운 인간성 및 건강한 가치관 정립, 지역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21세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한 지방자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13회가 진행중인 노원교양대학은 앞으로도 각계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시민들에게도 덕적 가치관과 균형적 감각의 소양을 함양하고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2월 23일 "부자의 자기경영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1회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제11회 노원교양대학 2005년 2월 23일(수)

지금 여러분의 의식에 먼지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노원구를 포함해서 새로워지려고 한다면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성은 피크타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은 자신에게 위기가 닥칠 때 발현된다고 하는데 능력있는 신랑을 만나서 생애에 한 번도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번도 능력발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겨준 성장 모멘텀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35세에서 55세 사이의 산업세대 주부들이 그렇습니다. 이른바 전업주부라는 마찰적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인류사에 전업주부는 없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잠깐 마찰적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소를 불문하고 직업을 가지셔야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장수사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못 돌아가십니다.

점차 높아지는 사회적 수명

저 같은 경제학자는 황우석 교수가 밉습니다. 대책은 없고 자꾸 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3년 전에 미국 대학에 갔습니다. 수명은 자꾸 길어지고 노후 재무관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미국에서 장수로 유명한 로체스터 대학에서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로체스터 대학에 쿤이란 교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연구해서 공식으로 만든 각 나라별 수명표가 있습니다. 제 경우 지금 52세인데 평균수명이 88세로 나왔습니다. 그 수치에는 레인지가 있어서 평균이 88세이고 조금 빨리 가는 사람은 76세, 길게는 94세까지 갑니다. 그래서 40세를 넣어봤더니 길게는 104세가 나왔습니다. 아찔합니다. 제 또래의 50대 여성들은 평균이 102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가난해도 덜 염려가 되지만 할머니는 꼭 부자라야 합니다. 안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의 소작농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시대가 모두 그렇습니다만 고학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 농부였는데 6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평균 연령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넘긴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수명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가 그 분을 계속 모시고 가는 겁니다. 좋은 병원, 성공한 아들, 착한 며느리, 좋은 음식 등등.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곧 90세가 되십니다. 오늘도 저랑 전화하셨는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일없이 살아 오신지가 30년 가까이 되십니다. 계속 무직자이십니다. 다행히 신앙이 높아서 '권사님'이라는 직업 아닌 하늘나라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직업은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직업 효능감이 중요

직업 효능감이 낮을수록 계속 공부해야

저는 지금 대학 교수가 다섯 번째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못 할 것 같습니다. 왜? 젊은 교수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수강신청 할 때 교수 나이부터 봅니다. 영어 잘 못하고, 컴퓨터 잘 못하고, 시험 까다롭고, 권위적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없는 교수는 떠나야 합니다. 요즘은 다들 계약직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곧 계약 만료입니다. 그래서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MC도 하고 가끔 CF도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생각해 보면 직업 효능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업 효능감입니다.

직업 효능감이 무엇이나? 첫 번째는 지금의 직업을 내가 원하는 한 계속 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이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즉각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사나 변호사들은 직업 효능감이 높습니다. 한의사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는 직업 효능감이 약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운동을 시키려면 직업전환능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러니 운동선수가 책을 많이 봐야 하겠습니까. 의사가 책을 많이 봐야 하겠습니까? 거꾸로 운동선수가 책을 많이 봐야겠지요. 회사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운동을 하다 그만두게 되면 가계를 할 것인지 공무원을 할 것인지 하여튼 뭔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한답시고 공부 안 하고 세상물정도 모르니 잘못되면 범죄로 가거나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 효능감이 낮은 직업일수록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또 단기에 소득이 높은 직업일수록 직업 효능감이 낮아서 자주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길만 고른 사람입니다. 직업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6개월 이상 놀면 큰일납니다. 6개월 이상 놀면 거의 100% 장기 실업으로 갑니다. 장기 실업이란 통계상으로 1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나 연구에 의하면 장기실업은 실업이 직업인 사람을 말합니다.

죽음 전까지 경제현장 떠나지 말아야 성공

휴식은 마약과 같습니다. 쉬면 안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본인이 마음을 접어서 그렇지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능력을 떠나서 경제현장으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권유합니다. 제가 재테크 전문가로서 노년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일손을 놓으신 분치고 그 재산을 지킨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아야 지키지요. 재산을 많이 모으시려거든 일에 관심이 많아야 하고 늘 일해야 합니다. 꼭 손을 움직이는 것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직감과 따뜻함 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업의 시대, 가난을 극복하는 능력은 교육

어머니는 그 자체로 학교이자 교육이다

오늘 제 얘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가업의 시대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에게 소득을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하

는 일은 실패한 사람을 뒤치닥거리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예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구청, 시청은 낙오한 사람, 하려고 했으나 불운한 사람, 또는 건강이 여의치 않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불운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이라 부르지 않고 '불운한 분, 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런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가난이 3대째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가지만 가난한 사람은 3대를 안 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분기팽창해서 인생을 뒤집어 3대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3대까지 갑니다. 이유가 뭐니까? 교육 때문입니다. 지난번 사회보장학회에서 발표했는데 국내 처음으로 거지 3대가 출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지인데 아버지도 아들도 거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나서 그렇습니다.

능력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학교 교육과 더불어 가정교육인데, 유태인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태인 여성은 아빠가 다른 민족이어도 계속 호적이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다른 민족인 경우에는 유태인에서 뺏니다. 자, 우수한 민족은 혈통인가요 교육인가요?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위대하고 화려한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을 말할 때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이 서양의 풍습입니다. 가령 조지 W. 부시도 자기 어머니 바바라를 취임식에서 "천하 망나니 제가 있기까지 저희 어머니의 저 자유롭고도 강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름을 물려주었으니까요."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 있으면 어머니보고 '오지 마세요' 겁니다. 별로 해줄게 없고, 할 말도 없거든요.

저는 MC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 물어봅니다. "어머니로부터 얻은 유전자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전자는 있는데 유전자는 없는데." "어머니 좋은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라고 끝입니다. 어머니는 그리운 존재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 자체가 학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나태하고, 어머니가 게으르고, 어머니가 사치하고, 어머니가 거짓말하면 그 학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문의 시대, 어머니의 힘

훌륭한 부모 밑에서는 훌륭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는 가문의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문을 잘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국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가문의 시대가 왔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잘 배운 아이는 또 그 가문을 이어갈 것이고, 상태가 불량한 부모 밑에서 큰 아이는 본인이 잘하면 모를까 아차 하면 잘못됩니다.

조지 W. 부시는 심각한 망나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0세까지 마약을 하고 학교도 예일대를 나왔으나 뒷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일대 졸업생이기 때문에 미

국은 이런 경우에 기여입학제를 통해 입학시켜줍니다. 이렇게 졸업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케네디입니다. 하버드대에 가서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면 케네디 스쿨이라는 건물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케네디의 할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세운 건물입니다. 그분 역시 하버드 출신입니다. 케네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손자들을 위해서 법대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에드워드 케네디 모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시도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온통 C 학점이었던 부시는 창피해서 뉴헤이븐이라는 동네를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선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예일대였습니다. "이제 비로소 올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나는 사실 학점도 영망이었으나 예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감사하러 왔다. 나처럼 이런 학점 받지 말아라. 창피해서 모교에 못 오겠더라. 학점 따기 얼마나 쉬운데, 그 많은 투표를 해서 겨우 대통령이 되어서 오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시가 40세 때 할아버지가 '텍사스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물려줬습니다. 이 정유회사를 만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부시는 오늘날 텍사스오일을 유명한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텍사스 주지사를 거쳐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의 어머니 바바라 여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민의 9%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가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부시의 두 동생은 주지사입니다.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텍사스오일의 가스와 기름을 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힘이지요.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

존경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회복기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에 의하여? 자산과 지식에 의해서입니다. 부자집이야 자산이 있으니 제가 도와드릴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책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외갓집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영어, 수학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Solution'이라고 하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를 꼭 열어드셔야만 가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人間



엄길청 경제평론가 / 경기대 교수

1955년 생 / 한양대 신문방송학 학사 / 한양대 경영학 석사 / 세종대 경영학 박사 / 아태경제연구소 소장 / (주)쌍크롤 대표이사 / 한국전략경영학회 이사 / 현 경기대 행정대학원 및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경제평론가, 방송인



“소 꼬리가 되기보다는 닭 머리가 되라.”
 자녀교육에 욕심이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늘상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자녀교육에 과열하고 있는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에 쌓인 어떤 ‘한’이 있어 ‘큰 인물 콤플렉스’가 자녀교육의 과열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시대이다. 우리 한국인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도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남보다 앞선 인물로 키우고자 하는 교육과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기유학 붐으로 적지 않은 돈이 외국 특히,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세계명문대의 대명사격인 하버드대에 입학한 한국계 학생들이 놀라울 정도로 돋보이고 있다. 그러나 폭증하는 입학생에 비해 하버드대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다소 실망스런 보고도 나오고 있다. 무엇이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나오도록 했을까. 명문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인생의 큰 꿈과 비전이 있어서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버드대 교육과정이 가장 좋은 도구로 선택됐다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맹인 강영우 박사를 이 달의 표지인물로 선정해 인터뷰를 했다. 시각장애인으로 ‘인생 고해’의 장애를 극복하고 범인들이 넘보기 힘든 위대한 업적과 성취 그리고 아직도 생생하게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하게 시간관리를 하는 참 성공인의 모습, 참 지도자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진솔하게 보여주고 싶다.

강 박사는 자신을 부시 대통령 제2기 임기에 계속해서 장애인 정책차관보에 임명돼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인준을 거쳐야 하는 500명 중의 한사람으로 자신있게 소개하면서 최근 저서 <도전과 기회 3C혁명>에서 미국의 고위공직자 선정 기준으로 능력(Competence), 성품(Character), 헌신(Commitment)의 3C를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맹인 강영우를 그토록 큰 인물로 키웠을까. 다른 아닌 꾸준한 학습으로 실력을 키우고 남다른 신앙심으로 인격을 연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에 헌신하

는 사명감이 오늘의 그를 키워낸 것이다.

자주 쓰이는 예화이긴 하지만 어떤 여행자가 세 사람의 석공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을 지나게 되었다. 행인은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소?” 세 사람의 석공들은 제각각 대답이 달랐다. “돌을 깎고 있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당을 벌고 있소.” “저기 저 멀리에 앞으로 지을 성전을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돌 한 장 한 장을 깎고 있소.” 첫 번째 석공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둘째 석공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고, 세 번째 석공은 신앙심에 입각한 선명한 비전이 있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요 교육학자인 제롬 브르너(Jerome Bruner)는 그의 명저 <교육과정(The Processing Education)>에서 학문에 성공하려면 “학문 전체의 구조를 보라! 학문하는 방법을 배워라! 발견 학습으로 지적흥분을 직감하라!” 라고 학문하는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비전과 사명감과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 생활하고 관련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게 되면 지적흥분이 일어나고 새롭게 열정이 솟아오름을 느껴 남모르는 즐거움으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게 된다.

헨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3중고를 이겨냄으로 위대한 인물이 됐을 때 그에게 보지 못하는 맹인과 듣지 못하는 농아 중에 누가 더 불행하느냐고 물었다. 헨켈러의 대답은 엉뚱했다. 맹인도 아니고 농아도 아닌 “시력은 있으면서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 라고 답한 것이다.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다고 원망할 필요는 없다. 존 F. 케네디는 지능지수 116에 매일 스테로이드를 대량 복용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전이 있었기에 미국 정치사에 최연소 대통령이 되어 세계사의 영웅 중 한사람이 된 것이다.



남다른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꿈꾸는 자는 세계를 구원하는 구세주이다.” 라는 제임스 알렌의 말로 이 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人間



인 생에는 운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어떤 신비로 운 힘이 나를 인도하여 오늘 여기에 오게 한 것 같고, 앞으로 그 힘이 나의 여생을 결정할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고는 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보면 자유라는 것도 환상 같기만 하다.

내가 태어난 것부터 나의 자유의사는 아니었다. 왜 하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는가. 나의 부모라는 특수한 사람들, 그 분들의 집의 독특한 분위기를 일생동안 지니게 됐는가. 왜 또 평양이라는 먼 곳의 중학교를 다녔는가. 경제학을 왜 했는가. 6.25 사변이 아니었던들 내가 군대에 가서 육군사관학교 교관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육사 수석 고문관의 통역을 하지 않았던들 미국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밖에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안 한 것 모두가 겉으로는 나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좋던 싫던 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된 결과이다. 왕양명(王陽明)의 시에 “하늘의 판정에 의한 것이지, 사람의 꾀에 의한 것은 아니다(憑天判下非人謀)”라는 구절이 있다. 그는 일세의 대유(大儒)였고, 난리를 평정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인물이었지만 그제 다 운명이었다고 본 것이다.

정주영 현대 회장의 업적을 칭송하지 않을 사람은 드물다. 그의 엄청난 노력, 결단, 능력, 모두 신화와 같다. 무엇이 정 회장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는가.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정 회장 같은 분의 업적은 ‘자연의 기만(Nature’s Deceit)’의 결과이다. 자연은 탁월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을 골라서 여러가지 욕망을 안겨줌으로써 그에게 힘겨운 좋은 업적을 남기도록 유도하여 후세사람들이 그 노력의 결과를 향유하게 한다는 것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정 회장은 자

연의 기만에 걸린 분이였다.

운명을 논하자면 주역(周易)을 빼놓을 수 없다. 정이천(程伊川)이 지적인대로 주역에는 네 가지 용도가 있지만 그 중의 한 가지는 점을 치는 일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어떤 일을 하던지 점치기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자료로 삼았다. 그러나 점책치고는 이 고전의 사상에는 한 가지 특이한 탁월한 점이 있다. 사람의 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전복위화(轉福爲禍)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역의 운명관이다. 좋은 운도 잘못 받으면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나쁜 운도 좋게 받으면 좋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기의 운을 결정한다는 말이 된다.

맹자는 “세상 모든 것이 운명이 아닌 것이 없지만 순하게 그 바른 것을 받으라(莫非命也, 順受其正)”라고 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다 운명이지만 운명에는 바른 것이 있고, 바르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 가운데서 바른 것을 받도록 하라. 바르지 않은 운명을 받는 것은 운명을 아는 자(知命者)가 아니라는 것이다.

맹자가 말한 ‘바른 명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경과는 하늘에 맡기라는 뜻으로 나는 본다. 정말로 바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운명을 알고 바른 운명을 받을 수 있다. 운명을 알아야 세상을 달관할 수 있다. **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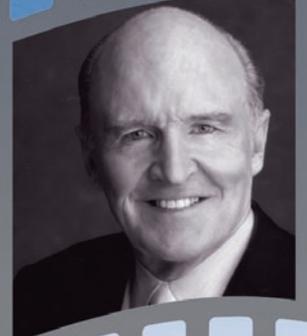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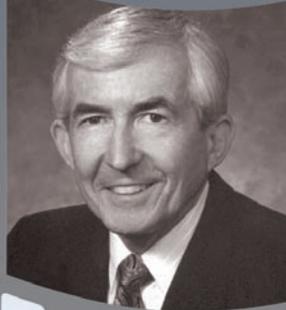


조 순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민족문화추진회 회장 SK 사외이사

2004년 1월부터 집필해주셨던 이시형 박사님의 칼럼이 지난 3월 호로 마감되고, 4월 호부터는 조 순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님의 칼럼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좋은 글로 지면을 빛내주신 이시형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가치를 극대화 하십시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인지
비범한 사람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퍼스널리더십 개발은 당신의 개인적 가치를 높여 주고, 당신을 성공자로 만들어 줍니다.

성공하는 리더들의 퍼스널리더십 과정

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1. 참가대상 : CEO, 경영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영업관리자 등 전문가
2. 교육기간 : 주1회 회합-16주 완료
3. 교육비 : 2,200,000(VAT포함)
4. 교재구성 : 학습교재 1set, 행동계획서 1set, 카세트테이프 8개

LMI 한국엘엠아이(주)



김치가 생각날 때...

100% 우리농산물로 담근 김치는 하나 뿐입니다!

농협 아름찬김치

비 내리는 날이면 문득 먹고 싶어지는 시원한 칼국수...
 한입 가득 넣고 김치 한 조각 베어 물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김치가 생각날 땐 아무 김치 말고 농협 아름찬 김치로 드세요.
 배추는 물론 마늘, 고추, 파, 심지어 소금까지
 100% 우리농산물로 만들어 맛도 영양도 100%!
 우리나라에선 농협 아름찬김치 하나 뿐입니다.



구입문의: 080-399-9988 / www.arumchan.com

Human Bank, Human Life

